

2015 문화계 결산

① 미술

개혁 나선 비엔날레 이사장 사퇴 아쉬움



지난 11월 열린 '2015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장 모습.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작품들을 제품으로 상용화시키며 산업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015년 광주·전남 문화계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천경자 화백 타계와 위작 논란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던 유독 많았다. 올 한해 지역문화계의 흐름과 현안들을 미술, 공연, 문학·문화재 등으로 나누어 개제한다.

올해 광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광주 비엔날레는 본격적으로 개혁의 맛을 올렸다.

재단은 지난해 '세월오월' 풍파를 겪으며 이사장인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용우 대표이사가 물러나면서 새롭게 진용을 개편했다. 민간 이사장으로 전용철 전 감사원장을 영입했고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6개월 한시직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올 2월 정동채 대표이사가 사퇴와 함께 7대 혁신안을 발표하며 개혁에 돌입했다. 혁신안의 주요 내용이었던 민간 사무처장제는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8일 전용철 이사장마저 사퇴의사를 밝히며 개혁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모양새다.

현재 박양우 대표이사가 이사장직을 대행하고 있지만 다음 행사(2016년 9월2일~11월6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확충 등 혁신안의 실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관기관이 광주미술협회로 바뀌어 열린 올해 광주 국제 아트페어 '아트광주15'(9월 3일~6일)는 관람객과 판매액이 예년에 비해 증가,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4만여명의 관람객이 몰렸고 주최 측 추산 30억여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이는 지역 작가들이 직접 자신의 부스를 운영하며 관람객과 소통했고, 중저가 작품을 대거 전시하며 컬렉터를 유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흥행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유명 갤러리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 전치'에 머물렀

관객 4만여명 매출액 30억원
아트페어 '아트광주' 가능성 보여

예산·전시기간·관람객 반토막
초라해진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갤러리는 작품을 전혀 판매하지 못하고, 국내외 유명 화랑이 오지 않아 '늘상 보던 그림만 보이는' 행사에 머물렀다는 혹평도 나왔다.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팔다 보니 참여 화랑들의 불만도 컸다. 지역 작가들의 개인 부스에만 지역 컬렉터가 몰려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진 타지역 갤러리들의 내년 아트페어 참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2015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도 주관기관이 바뀌며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아쉬움을 남겼다. 예산과 전시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다 광주디자인센터가 전담기관이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광주시 직원을 투입해 추진단을 새로 꾸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홍보 부족 등 운영의 미숙함을 보이며 다음 행사의 주관기관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관람객은 약 7만명으로 예상 목표 수 10만명에 크게 못미쳤다. 전시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지난 2013년 22만명, 2011년 25만명에 비해 아쉬운 숫자다. 관람객 수가 감소한 데는 지난 행사에 비해 무료 입장객 수가 줄어든 데다 무엇보다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홍보를 거의 하지 못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성과도 있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지역업체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완성된 작품들이 실제 제작돼 해외 진출을 앞두는 등 산업화의 첫단추를 끼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1924년 고졸음에서 태어난 천 화백은 일본 동경 여자미술전문 학교에서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1944년 귀국 후 전남여고와 광주사범학교 미술교사로 근무하며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1952년 동생의 죽음을 형상화한 '생태(生態)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으며 여인의 한(恨)과 환상, 꿈과 고독을 화려한 원색으로 표현하는 독보적인 화풍을 개척했다.

그는 1991년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시비로 질필을 선언하고 뉴욕으로 떠났다. 위작 시비는 유족들과 국립현대미술관 사이에서 여전히 진행 중으로 천화백이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이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의미있는 전시도 열렸다.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는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광주미술상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광주미술 어제와 오늘'전을 지난 10월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황영성, 강연근, 우제길 등 지역 미술계 원로 및 중견, 청년, 작고 작가에 이르기까지 회원 83명의 작품이 전시됐다. 서양화, 한국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서예 등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작품이 출품돼 관람객들은 한눈에 광주미술사 흐름을 조망할 수 있었다. 광주미술상은 지역 선배 미술인들이 후배들을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상금은 1000만원이다. 올해 '제21회 광주미술상' 수상자는 이정기 작가(40)가 선정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환타지아'

수채화의 진수...울긋불긋 원색 꽃잔치

아트타운갤러리 내달 16일까지 정우범 화백 개인전

지난 1995년 미국 워싱턴 미셀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으며 한국과 미국 화단에 반향을 일으켰던 정우범 화백이 15년만에 신작 '환타지아'를 들고 광주에 찾아왔다.

정 화백이 1월 16일까지 아트타운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정 화백은 최근 일련의 꽃을 다룬 수채화 작품 '환타지아'를 선보이며 제 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형형색색 원색의 꽃들로 화폭을 가득 채운 이 작품은 수채화의 매력을 듬뿍 보여준다. 번짐효과를 사용하며 조화를 이루는 꽃들은 서정과 환상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때론 하얀 배경을 그대로 놔두 담백한 맛을 느끼게 한다. 정씨는 터키 이스탄불 여행 중 케말 대통령 기념관 앞에 펼쳐진 화단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남도 지역 장터 풍경을 그린 '장날' 등도 선보인다. 어두운 색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감이 있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시골에서 태어나 보고 자란 고향의 풍경을 추억하고 있다.

정씨는 "체력적으로나 작품성으로나 지금이 가장 전성기라는 생각이 든다"며 "광주를 떠난지 십수년이 됐지만 내 화업을 이뤘던 곳에서 꼭 전시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무안 출신인 정씨는 조선대학교 미술교육을 전공했고 국내 뿐 아니라 대만, 북경, 상해, 모스크바 등 전세계에서 전시를 열고 있다. 문의 062-232-714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인생은 바람...잠깐 쉬었다 가세요

무등현대미술관 2월28일까지 김왕주 '바람, 바람'展

바람을 통해 삶 속에서 만나는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있는 김왕주 작가가 2016년 2월28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바람, 바람'전을 개최한다.

김 작가는 본인의 체험을 시각화 시켜 추상적으로 묘사한다. 주변에서 찾기 쉬운 구름, 계단, 창, 나무 등 간결한 오브제와 부드러운 색을 사용해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상상들을 그대로 재현한 작품 12점을 선보인다.

작품 '바람 바람'은 마음 속 아픔을 치유해가는 과정을 흘날리는 매화와 꽃신을 표현하며 친근함과 행복함을 느끼게 한다.

김씨는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이상향을 되새겨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 자신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초대의 말을 전했다.

김씨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어머니 삶과 예술展', '광주여성미술제 천개의 태양', '아시아문화인류에티팅국제미술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전시



'바람 바람'

관람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500원이다. 문의 062-223-6677. /김용희기자 kimyh@

박성천 소설집

삶의 불모성에 천착한 따뜻한 언어의 미학

박성천 작가의 소설은 삶의 이면에 어둡고 깊게 드리워진, 아픔과 슬픔을 예리하게 들여다본다. 현실에 갇힌 등장인물들의 삶은 결코 선블리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도 무참하다. 일견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너머에 무겁게 자리한 삶은 고해(苦海)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삶의 고통을 극복해나가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냉엄하다. 작가는 조금의 과장이나 애드립 없이 날것 그대로를 응시한다. 박성천은 자신만의 소설작법을 독심 있게 밀고나가면서, 독창적이고도 완성도 높은 형상화라는 그만의 미학을 성취해나가는 데서 빛이 난다.

- 문순태 소설가

박성천 소설의 미덕은 삶의 비무함과 냉혹함을 감싸 안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인간적인 태도에 있다. 인물들의 처지는 하나같이 외롭고 궁핍하고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주목하고 서사적으로 이끌어간 작가의 특성이 은근하고 순정적이다. 부한 경쟁 체제 속에 낙오된 무력한 소시민의 지난한 현실을 예리하면서도 온기 가득한 삶의 언어로 빚어내고 있어 희귀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 함정임 소설가·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박성천 저 | 224쪽 | 컬러 | 값 12,000원